

2022. 1. 6(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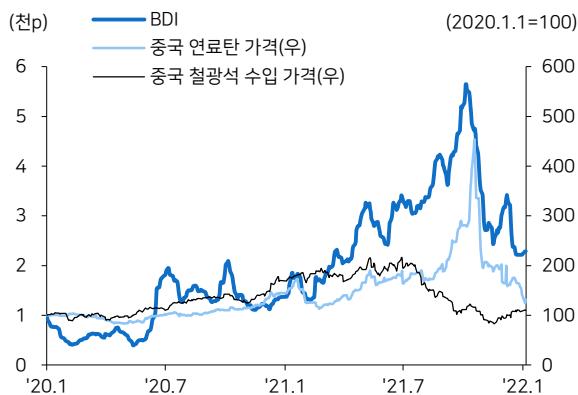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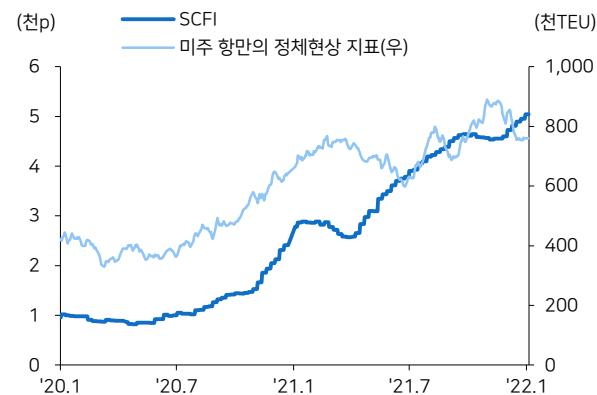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89.0p(+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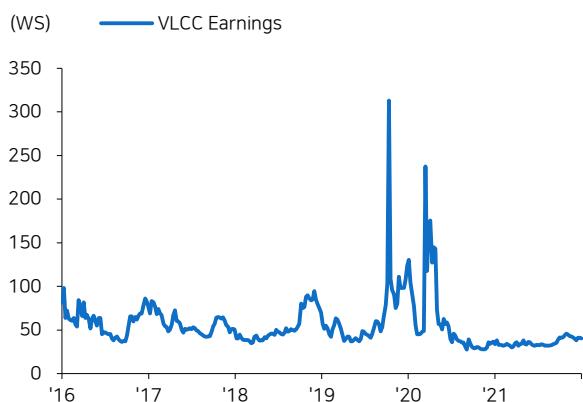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5,046.7p(+9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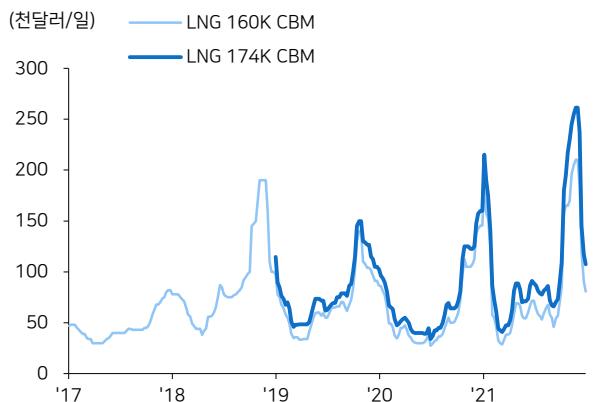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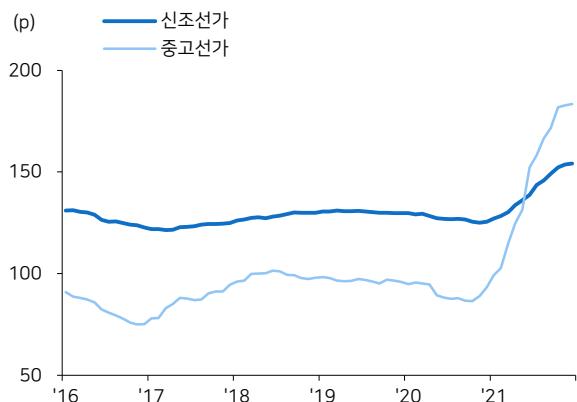
40.4p(-0.6p WoW)



LNG Spot 운임

80.8p(-10.5p WoW)
107.5p(-1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4.2p(+0.1p WoW)
183.0p(+0.0p WoW)

항공화물 처리량

339.7p(+4.9p DoD)
100.8p(+2.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정부 "임시선박 확대 · 물류비 320억원 지원" . . . 물류난 해소 '총력'

컨테이너선 운임이 5천선을 돌파하며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매달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물류비 지원을 34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함. 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20% 확대됨. (조선Biz)

Indonesia talks on coal exports postponed as scores of ships in limbo

수요일(5일) 예정되었던 인도네시아 정부-석탄업계간 회의가 연기됨. 연기된 이유와 다음 회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음. 한편, 중국의 발전용 석탄 선물가는 수출금지조치 발표 후 첫 거래일에 +7.8% 상승함. (Reuters)

SK Shipping named as behind KSOE LNG carrier order

화요일(4일), 현대삼호중공업이 수주한 174,000CBM급 LNG선의 선주는 SK해운으로 보도됨. 2024년 하반기 인도예정임. 현재 SK해운은 LNG선 10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重그룹, 美 팔란티어와 '빅데이터 플랫폼' 합작사 설립 추진

현대중공업그룹이 팔란티어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합작사 설립 MOU를 체결함. 주요 계열사별 플랫폼 구축 후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전문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임. 현대중공업의 2030 스마트조선소 전환에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도입될 것으로 보도됨. (서울파이낸스)

티웨이항공 '유럽·북미도 누빈다'…장거리 비행기 추가도입 검토

티웨이항공이 런던 및 파리, 스페인 등 주요 유럽 노선과 LA와 뉴욕 등 북미까지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며 장거리노선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됨. 티웨이항공은 오는 2월 A330-300기종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순차적으로 총 3대를 도입한다고 보도됨. (뉴시스)

대한항공, 2025년까지 영종도에 엔진정비단지 구축

대한항공이 2025년까지 영종도에 엔진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보도됨. 3,346억원을 투자해 정비엔진 능력 9종, 연간 300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 외에도 2021년 유치 협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항공 개조사업,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의 화물기 중정비센터 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첨단 항공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을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